

2024.08.20.(화) 증권사리포트

라운시큐어

2Q24 Review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인프라 구축 중

[출처] 유진투자증권 박종선 애널리스트

2Q24 Review: 전년동기 대비 매출액 증가했으나 R&D 비용 증가로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 시장 기대치 하회

매출액 127억원, 영업손실 14억원을 달성함. 이는 전년동기 대비 매출액은 8.8% 증가하였고, 영업이익은 적자로 전환되었음. 시장 컨센서스(매출액 152억원, 영업이익 16억원)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하회하였음.

2분기 실적에서 긍정적인 것은 블록체인 서비스 부문의 매출이 증가한 것임. 전년동기 대비 73.5% 증가함.

영업손실이 발생한 이유는 ① 생성형AI, 양자내성암호(PQC) 등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인력 확충으로 연구개발비 상승, ② 옴니원 디지털아이디, 옴니원CX, 옴니원 NFT/메타데미 등 인프라 투자비용 증가 때문임.

3Q24 Preview: 국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인프라 구축 추진 중. 중장기 성장 동력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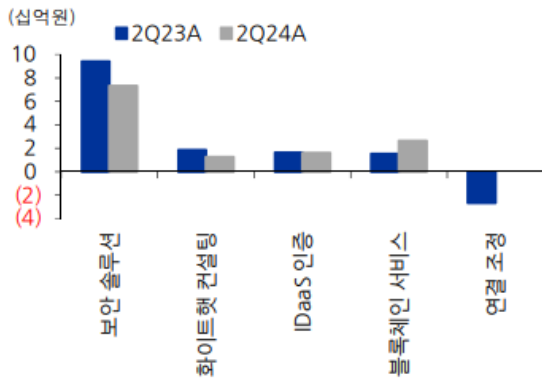
매출액 126억원, 영업손실 2억원을 예상함. 전년동기 대비 매출액은 42.7% 증가, 수익성 개선을 기대함.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신분증(주민등록증) 발급 시스템 사업이 올해 12월말 구축 완료 예정. 내년 3월부터 민간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시작될 예정으로 모바일 신분증 확산에 따른 중장기 매출 성장을 기대함.

현재주가는 2024년 예상실적 기준 PER 19.1배로, 국내 동종업체 평균 PER 32.1배 대비 할인되어 거래 중임.

12월 결산(십억원)	2022A	2023A	2024E	2025E
매출액	46.8	51.8	61.3	69.9
영업이익	4.3	-1.7	1.3	8.5
세전손익	7.2	5.0	3.4	9.8
당기순이익	8.3	6.0	6.3	10.7
EPS(원)	172	74	102	181
증감률(%)	흑전	-56.9	37.3	77.7
PER(배)	12.2	33.2	19.1	10.8
ROE(%)	19.3	9.9	11.7	17.9
PBR(배)	2.1	3.0	2.1	1.8
EV/EBITDA(배)	10.3	87.9	19.6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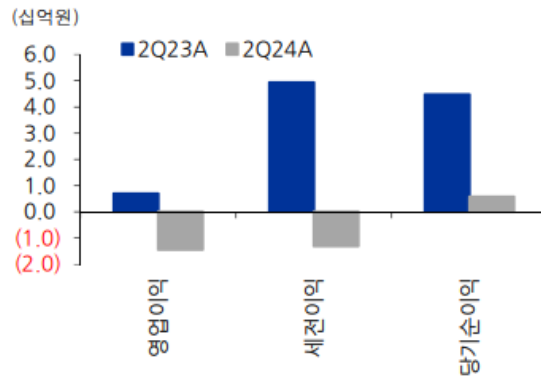
자료: 유진투자증권

도표 2. 부문별 매출액 증감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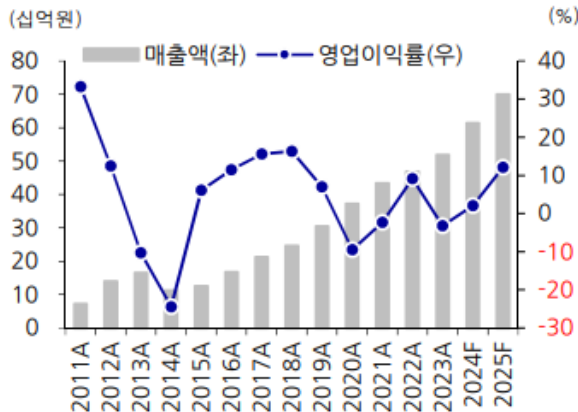
자료: 유진투자증권

도표 3. 수익성 증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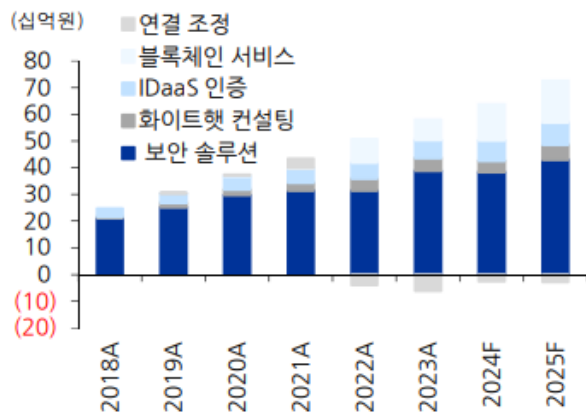
자료: 유진투자증권

도표 8. 연간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 추이 및 전망



자료: 유진투자증권

도표 9. 연간 사업별 매출 추이 및 전망



자료: 유진투자증권



세방전지

하이브리드차가 좋든, 전기차가 좋든 성장합니다

[출처] [하나증권 송선재 애널리스트](#)

2Q24 Review: 영업이익률 11.4% 기록

세방전지의 2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다(영업이익 기준 +28%). 2분기 매출액/영업이익은 31%/87% (YoY) 증가한 5,196원/590억원(영업이익률 11.4%, +3.4%p (YoY))을 기록했다. 85% 비중을 차지하는 차량용 전지류 매출액이 55% 증가한 덕분이다. 판매 수량이 20% 증가한 가운데, 판매단가도 14% 상승했다. 평균 판매가격은 상반기 기준으로 약 7.2만원인데, 고부가 AGM 전지의 비중 상승과 환율 상승 등으로 2021년 5만원대에서 꾸준히 상승한 상태이다. 반면, 주요 원재료인 납 원가(매출액 대비 41% 비율)는 안정적인 편이다. 상반기 기준 납 원가는 톤당 2,121달러로 전년 동기와 유사하다. 핵심 연결 자회사들인 세방리튬배터리는 108%, 상신금속은 9% 성장하면서 연결 매출액 증가에 기여했다. 높은 외형 성장에 따른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와 원재료 비용의 안정 등으로 매출총이익률은 2.1%p (YoY) 상승한 18.2%, 영업이익률은 3.4%p (YoY) 상승한 11.4%를 기록했다.

하이브리드용 AGM 및 자회사 세방리튬배터리의 고성장 지속

세방전지의 성장은 두 부문에서 나온다. 본사에서는 고성능 축전지인 AGM(Absorbent Glass Mat)이 성장 중이다. AGM 전지는 기존 납축전지에 비해 긴 수명과 높은 성능으로 하이브리드차 및 전기차의 시동용으로 채택이 늘어나고 있다. 수요도 증가하는데, 일반 MF전지에 비해 가격대가 2배 높아 매출 성장에 기여 중이다. 세방전지는 현재 400만개의 AGM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100만개 증설을 진행 중이다. 증설한 물량은 해외 AS 수요에 대응할 예정인데, OE 물량에 비해 판가가 1.5배 이상 높아 수익성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자회사인 세방리튬배터리(지분율 92.07%)의 매출액은 2분기 883억원(+108% (YoY)), 상반기 누적 1,470억원(+117% (YoY))으로 증가했다. 세방리튬배터리는 배터리셀 업체(주로 삼성SDI)로부터 셀을 공급받아 BMS, 냉각장치 등을 추가한 후 배터리모듈(BMA)로 조립하여 배터리팩 업체로 납품한다. 2022년 하반기부터 유럽 상용차로 납품 물량이 증가하여 2022년 하반기 298억원, 2023년 상반기 676억원, 하반기 1,104억원, 그리고 2024년 상반기에는 1,470억원으로 증가했다. 전기차 수요가 다소 주춤하지만, 추가 프로젝트의 수주에 힘입어 2024년 매출액은 3,000억원 이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vs. 2023년 1,780억원).

HEV 및 EV 양 부문에서 수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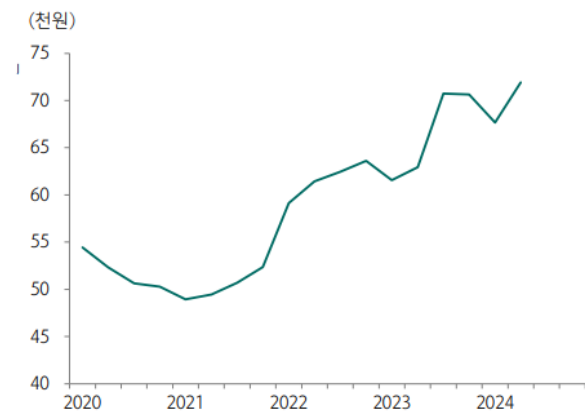
부채비율 49%와 1,800억원 수준의 순현금을 보유해 재무구조가 우량하다. 고부가 제품인 AGM 전지의 수요 증가에 맞춰 증설이 진행 중이고, 세방리튬배터리도 기수주 및 추가 수주 물량을 기반으로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주가는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P/E 8배 전후인데, 하이브리드차 및 전기차 성장에 따른 수혜를 감안할 때 저평가된 상태라는 판단이다.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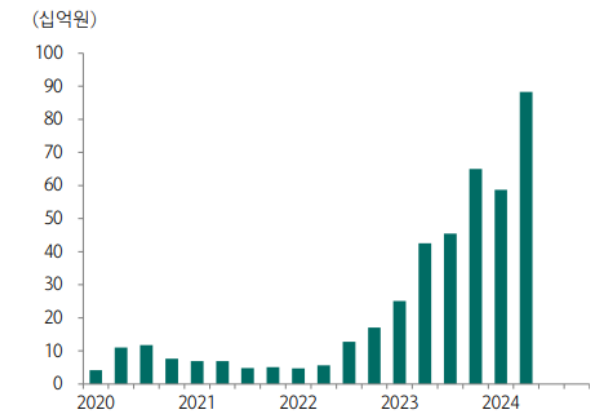
투자지표	2020	2021	2022	2023
매출액	1,253	1,352	1,473	1,685
영업이익	86	100	81	130
세전이익	88	119	70	141
순이익	66	84	43	118
EPS	4,733	6,022	3,059	8,348
증감율	(15.4)	27.2	(49.2)	172.9
PER	14.6	12.6	13.8	7.0
PBR	0.9	0.9	0.5	0.6
EV/EBITDA	4.9	6.0	3.8	3.6
ROE	6.0	7.1	3.5	9.0
BPS	80,451	85,729	88,677	95,799
DPS	500	600	600	700

도표 2. 세방전지의 자동차용 축전지 ASP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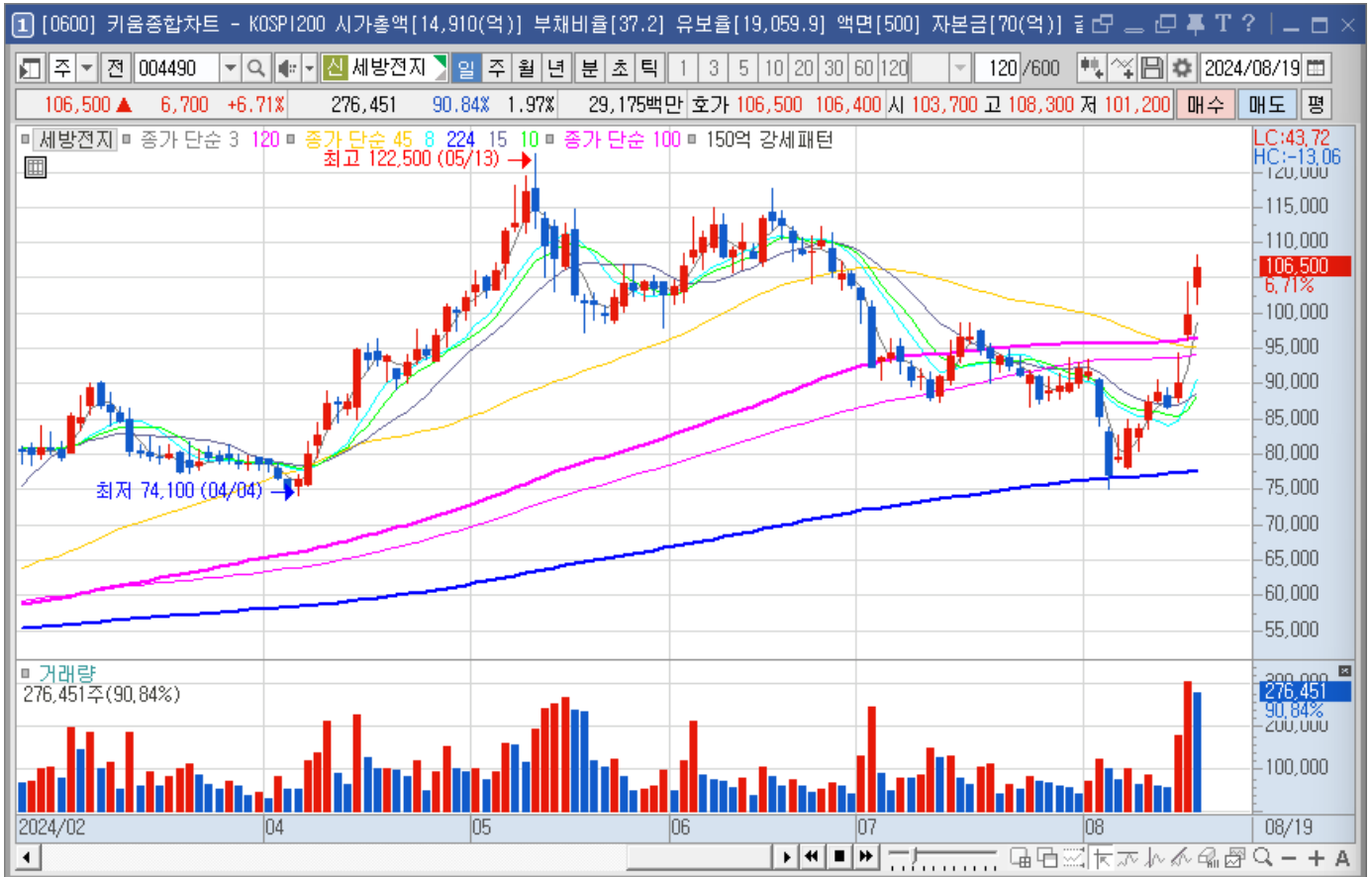


자료: 세방전지, 하나증권

도표 3. 세방리튬배터리의 분기 매출액 추이



자료: 세방전지, 하나증권



휴젤

특신/필러 수출 급성장, 미래가 밝다

[출처] 상상인증권 하태기 애널리스트

특신, 필러에서 국내 선두기업

휴젤은 특신과 필러, 화장품의 사업포트폴리오를 갖추고, 국내 최대 에스테틱업체로 자리잡고 있다. 특신과 필러, 봉합사, 화장품에서 사업시너지를 창출하며, 수출(상반기 수출비중 59.6%) 중심으로 고성장하고 있다.

특신과 필러 수출중심으로 고 성장한다

에스테틱에서 선두적인 위치를 점하면서 수출중심으로 성장, 기업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평가되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25년부터 특신 수출이 더 가파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가격 경쟁이 심한 국내시장에서 국내 특신 매출은 2024년 상반기에 374억원(YoY -7.5%)으로 국내 1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수출에서는 고 성장 중이다. 상반기 수출액은 478억원(YoY +41.2%)로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기존에 시장이 큰 중국선적이 살아나고, 일본, 태국, 그리고 브라질 외 남미 5개국, 캐나다 등에서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FDA 승인을 받아 현지 파트너사 베네브(Benev)와 유통계약을 체결했다. 2024년 하반기부터 미국 수출이 시작되었고 2025년부터 본격매출이 발생할 전망이다. 2025년부터는 전사 특신 수출이 가파르게 성장할 전망이다.

둘째, 필러 매출도 수출 중심으로 고성장 중이다. 상반기 필러 매출은 16.3% 증가한 657억원이다. 필러 수출은 아시아/태평양/중남미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20.8% 성장한 499억원을 기록했다.

셋째, 한국의 에스테틱산업의 글로벌 영업환경이 개선되고 있다. K뷰티에 이어 K특신/필러의 글로벌 영업환경도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어 수출증가가 기대된다. 그외 화장품과 봉합사부문도 특신/필러의 사업 시너지로 고 성장할 전망이다.

Financial Data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PER (배)	EV/EBITDA (배)	PBR (배)	ROE (%)	배당수익률 (%)
2022	282	101	57	4,629	29.1	10.9	2.1	7.3	n/a
2023	320	118	93	7,747	19.3	11.1	2.4	12.1	n/a
2024E	378	154	128	12,114	22.5	18.8	5.4	18.9	n/a
2025E	448	188	153	14,554	18.7	14.9	4.3	22.5	n/a
2026E	525	221	178	16,882	16.1	12.2	3.5	21.0	n/a

자료: K-IFRS연결기준, 상상인증권



유아이엘
 압도적인 실적 기반 밸류에이션 Level-up 기대
 [출처] 하나증권 최재호 애널리스트

경쟁사 사례를 볼 때, 매우 가파른 주가 퍼포먼스 기대할 수 있는 상황

유아이엘은 향후 매우 가파른 밸류에이션 Level-up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한다. 이유는 우선 1) 독보적인 호실적이다. 기존 본업인 휴대폰 부품 부문이 캐시카우 역할을 함과 동시에 신규성장 동력인 전자담배 부문에서 Peer 기업들 대비 압도적인 성장을 이어가는 중이다. 따라서 1H24 영업이익 154억원(+250.0%, YoY)을 기록하며, 국내 전자담배 Peer 기업들 영업이익(A사 -84억원, B사 -28억원, C사 6억원) 대비 극명하게 높은 수익을 기록했다. 또한 2) 높은 밸류에이션을 부여 받을 수 있는 요소는 메인 고객사의 규모인데, 동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글로벌 M/S 1위 기업인 PMI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Peer 기업들 대비 유일하게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3) 마지막은 밸류에이션 매력이다. 높은 실적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국면에서 동사는 현재 매우 저평가되어있다. 동사와 유사한 케이스로 A경쟁사의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2021년 글로벌 M/S 2위 BAT를 고객사로 확보한 이후 2021~2022년 호실적을 기록하며, 시가총액은 2021년 1월 1,967억원 □ 2023년 8월 1조 228억원으로 주가는 +419.9% 상승했다. 동사 역시 1H24 실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 호실적 구간에 접어들었으며, PMI의 신규 디바이스 글로벌 출시 및 미국 출시로 사상 최대 실적을 지속 경신할 것으로 전망한다. 기존 본업인 휴대폰 부품 기업들의 2024년 예상 P/E만 따져봐도 11배인데 반해, 동사는 강한 신규 성장까지 담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5배 수준이다.

2Q24 Review: 국내 Peer 기업들 대비 독보적인 실적 기록

유아이엘의 2Q24 실적은 매출액 1,016억원(+48.4%, YoY), 영업이익 73억원(+500.8%, YoY)을 기록하며 기존 추정치 매출액 1,003억원, 영업이익 59억원을 상회하는 호실적을 기록했다. 1) 스마트폰 부문은 지속적인 갤럭시 S24 시리즈의 판매 호조와 더불어, 동사는 초기 물량 품질 대란을 겪은 신규 웨어러블 디바이스 갤럭시링에도 관련 부품 생산 및 납품을 시작하면서 매출액 852억원(+39.2, YoY)을 기록했다. 2) 전자담배 부문의 성장이 가파르다. 매출액 133억원(+141.8%, YoY)을 기록하며, 경쟁사들 성장률(A사 -44.2%, B사 -53.8%, C사 +24.5%) 대비 압도적인 성장을 과시했다. 3) 동사는 신규 성장 동력으로 글로벌 북미 M/S 1위 전기차 기업향으로 전장 부품 양산 및 테스트를 진행 중인데, 관련 실적이 기타 부문으로 잡히면서 매출액 31억원(+82.4%, YoY)을 기록했다. 최종 부품 채택 여부 및 본격적인 양산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신규 모멘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향후 기대할 수 있는 관전 포인트다.

2024년 매출액 4,681억원, 영업이익 276억원 전망, 상향 조정

유아이엘의 2024년 실적은 매출액 4,681억원(+40.9%, YoY), 영업이익 276억원(+218.2%, YoY)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며, 기존 추정치 매출액 4,668억원, 영업이익 262억원 대비 상향 조정한다. 고객사의 폴더블 신규 모델 출시(Q 증가)에 따른 계절성으로 3Q24는 분기별 가장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 PMI는 3Q24 신규 디바이스에 대한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있다. 따라서 전자담배 부문의 추가적인 수주 확보에 대한 개연성이 높은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분기별 호실적을 기록하며, PMI 신규 디바이스 글로벌 출시 이후 실적 추정치는 추가 상향 조정에 대한 여지가 존재한다.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0	2021	2022	2023
매출액	299	267	333	332
영업이익	(12)	(7)	6	9
세전이익	(12)	(15)	11	14
순이익	(11)	(16)	7	11
EPS	(494)	(751)	316	520
증감율	적전	적지	흑전	64.6
PER	(7.9)	(3.6)	10.5	10.4
PBR	0.5	0.4	0.5	0.7
EV/EBITDA	57.1	4.8	2.2	3.9
ROE	(7.2)	(11.7)	4.6	7.1
BPS	7,151	6,656	7,048	7,560
DPS	0	0	0	0





삼성생명

주주환원을 목표 50% 제시

[출처] NH투자증권 정준섭 애널리스트

3~4년 내 주주환원을 50%로 상향. 자사주는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삼성생명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131,000원 유지. 동사는 지난 16일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밝힌 기업가치 제고 방향성에서 적정 자본비율을 유지하는 동안 주주환원을 기존 35.1%에서 중장기(3~4년) 50%로 확대하겠다는 목표 제시. 다만 자사주 정책 등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밸류업)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시행 이후에 공시하겠다고 밝힘

이미 계열사(삼성화재)가 지난 5월 중장기 주주환원을 목표 50%를 제시해, 이번 삼성생명의 주주환원을 목표 50%는 예상 가능한 수준. 다만 사측이 밸류업 공시 지연 사유로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거론한 만큼, 보유 자사주 소각과 신규 매입은 올해보다는 내년부터 기대할 수 있을 전망

2024년 배당성향 37.2%를 가정한 DPS는 4,700원, 배당수익률은 5.3%. 높은 수익률은 아니지만, 향후 점진적으로 상승 예상

2Q24 지배순이익 7,464억원, +179.2% y-y

삼성생명의 2분기 지배순이익은 7,464억원(보험손익 4,436억원, 투자손익 4,638억원)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큰 폭 상회. 보험손익은 보험금, 사업비 모두 양호한 예실차를 기록했으며, 투자손익도 수익형 펀드 성과 양호. 신계약 CSM은 2분기 종신보험 판매 축소로 7,885억원(-8.1% q-q)으로 감소했으나, 3분기는 7월과 8월 합산 6,076억원 유입되는 등 재차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 2분기 CSM 조정은 다소 크게 발생(-3,544억원)했지만, 보험부채 할인율 강화 영향이 없는 3분기부터는 2천억원대로 규모 축소 예상

	2023	2024E	2025F	2026F
보험손익	1,449	1,325	1,490	1,564
장기	1,449	1,325	1,490	1,564
PAA	0	0	0	0
투자손익	950	1,579	1,710	1,785
지배순이익	1,895	2,276	2,359	2,429
증감률	-	20.1	3.7	3.0
EPS	10,554	12,672	13,180	13,701
PER	6.5	7.0	6.7	6.5
PBR	0.3	0.4	0.4	0.4
ROA	0.7	0.8	0.8	0.8
ROE	4.9	5.5	5.7	5.7
DPS	3,700	4,700	4,800	4,900
배당성향	35.1	37.1	36.3	35.5

단위: 십억원, %, 원, 배



애니플러스

환상적인 시너지

[출처] NH투자증권 심의섭 애널리스트

높은 경쟁력과 우호적인 사업 환경

동사는 일본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케이블 채널, OTT, 극장 등에 방송·유통·배급하고 있으며, 이외 자체 OTT 플랫폼 운영, MD 제작·유통, 전시 기획, 드라마 제작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종합 미디어 콘텐츠 기업으로 성장

애니메이션 산업은 OTT 시장 성장과 함께 새로운 성장기 맞이. 동사는 일본 신작 애니메이션의 70% 이상을 국내 유통하고 있으며, 1,400개 이상 작품 판권 보유. OTT 내 애니메이션 비중 증가 및 플랫폼 경쟁 심화로 동사 유통작 또한 증가세. 작년 경쟁사 애니맥스 인수 후 점유율 확대 및 규모의 경제 효과까지 더해지는 중

사업 시너지 확대되며 전사 실적 고성장 지속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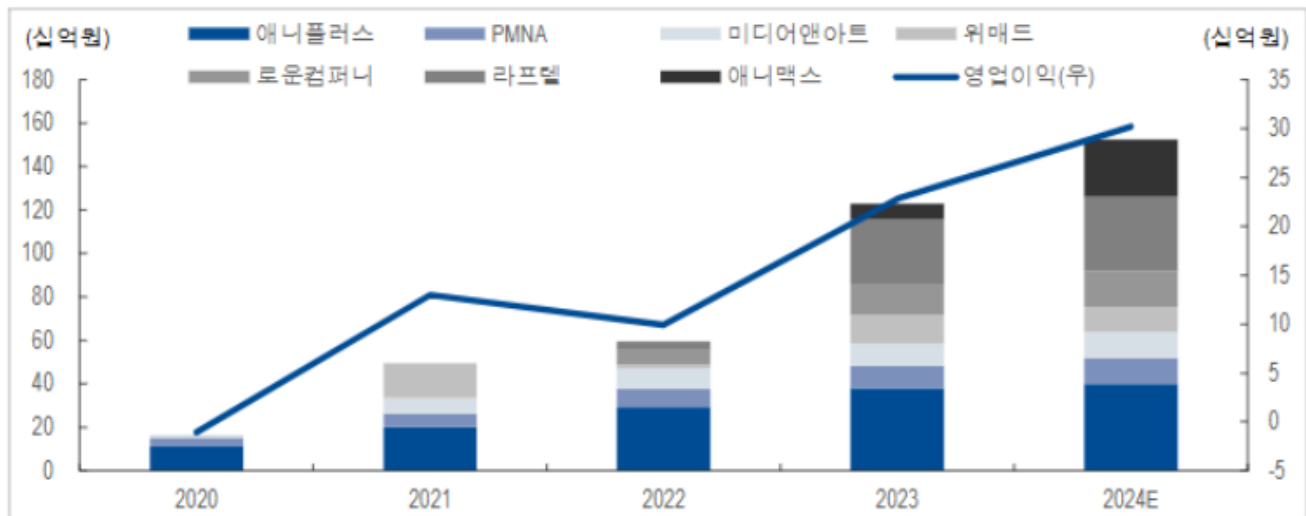
자회사와의 시너지 또한 확대되며 전사 실적 고성장 중. 본사 MD 유통·판매 사업 '애니플러스샵'은 MD 제작 자회사 '로운컴퍼니'와 시너지를 내고 있으며, 국내 최대 애니메이션 OTT 플랫폼 '라프텔'은 본사 방영권 유통 관련 시너지 외에도 글로벌 진출을 위해 해외 자회사 PMNA와 시너지 모색 중. 이외에도 애니메이션 산업 내 저변을 넓혀 나가며 다양한 영역에서 본사·자회사간 사업 시너지 확대 중

2Q24 매출액 343억원(+33.4% q-q, +44.7% y-y), 영업이익 81억원(+57.5% q-q, +159.8% y-y)으로 영업이익 기준 분기 최대 실적 경신. 라프텔과 애니맥스 실적 기여가 두드러졌으며, 하반기에도 우호적인 사업 환경과 사업 시너지가 지속되며 2024년 최대 실적 경신 전망. 2024E 기준 PER 9.0배, 전환사채 반영 시 11.2배 수준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지 않은 주가 수준이라 판단

	2023	2024E	2025F	2026F
매출액	809.7	140.6	161.6	188.3
증감률	-1.1	26.2	15.0	16.5
영업이익	47.3	30.2	37.9	43.0
증감률	19.3	32.1	25.4	13.6
영업이익률	5.8	21.5	23.4	22.9
(지배지분)순이익	20.2	16.0	21.3	24.1
EPS	996	352.6	467.1	528.6
증감률	-27.4	77.1	32.5	13.1
PER	16.6	9.0	6.8	6.0
PBR	1.6	1.3	1.1	0.9
EV/EBITDA	4.4	2.5	1.3	0.3
ROE	10.7	15.9	17.8	17.0
부채비율	97.4	97.8	96.5	96.2
순차입금	126.8	-292.9	-768.7	-1,339

단위: 십억원, %, 원, 배

애니플러스 매출액 영업이익 추이 및 전망



자료: 애니플러스,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전망



루닛
 5월부터는 새 단짝 Volpara Health와 함께
 [출처] 키움증권 신민수 애널리스트

5월부터 함께하는 Volpara, 숫자가 커졌다

2Q24 실적은 매출액 122억(YoY +124.6%, QoQ +137.9%), 영업이익 -199억(YoY 적지, QoQ 적지, 영업이익률 -163.1%)이다. 상반기 합산 매출액 174억원(YoY +5.8%, HoH +100.5%), 영업이익 -327억 원(YoY 적지, HoH 적지, 영업이익률 -188.5%)를 기록했다.

지난 5월 21일, Volpara Health와의 합병 완료로 재무제표에 Volpara의 숫자가 연결되기 시작했다. 상반기 매출액 174억 원 중 62.9%(109억)는 루닛 자체 매출액, 37.1%(65억)는 Volpara로부터 연결된 수치이다. Volpara Health는 고객사와의 장기 계약을 확보하는 형태로 사업을 하고 있어 월간 40억 원 이상의 매출액이 꾸준히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업이익 -327억 원 중 93.6%에 해당하는 -306억 원은 루닛 자체 영업손실, 6.4%에 달하는 -21억 원은 Volpara의 영업손실에 기인한다. 당기순이익은 2Q24 140억 원을 기록했지만, 전환사채 발행 이후 주가 하락에 따른 파생금융부채평가이익에 의한 것이다.

루닛 자체 영업손실 폭이 확대된 것은 인력 채용을 1H24에 적극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이다. 1H24 인건비는 211억 원으로, '23년 연간 인건비 299억의 70.6%에 달한다. 향후 2H24에는 채용 규모를 조절하며 비용 통제 효과를 볼 수 있을 예정이다. 또한, Volpara는 고객사에게 12개월의 매출액에 대한 현금을 미리 받는 계약 구조를 가지고 있어 현금흐름이 양전한 상태이다. 이는 전사가 이익을 기록할 때까지의 체력을 키우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Lunit INSIGHT' 매출액은 1Q24 47억 원 → 2Q24 55억 원(QoQ +16.9%)을 기록했다. 'CXR' 제품은 '24년 3월부터 혁신의료기술 승인을, 'MMG' 제품은 5월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지정을 통해 국내 병원 비급여 처방이 가능해졌다.

커져가는 외형, 사상 첫 연간 영업손실 비중 두자릿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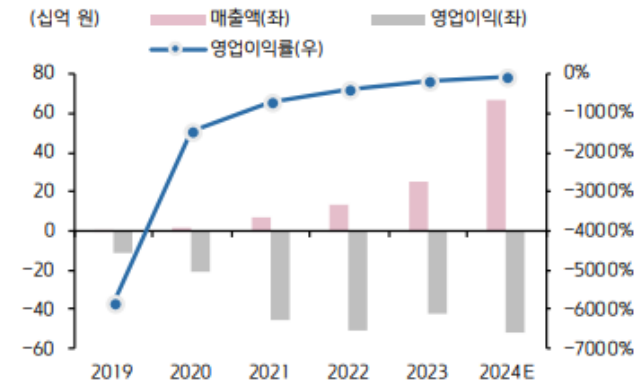
'24년 동사 전사 매출액 675억 원(YoY +168.9%), 영업이익 -520억 원(YoY 적지, 영업이익률 -76.9%)을 전망한다. 국내에서 규제를 통과하여 비급여 처방이 가능해진 'INSIGHT' 제품들의 성장세가 QoQ +25% 수준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해외에서는 Volpara의 경상적인 매출액에 힘입어 미국 사업 시너지를 통해 'Lunit INSIGHT' 매출액 성장이 이뤄질 전망이다. 일본 파트너사 Fujifilm의 현지 영업 호조와 유럽에서의 영업 1주년차로 인해 미국을 제외한 해외 지역에서의 매출 성장도 기대할 수 있다. 커진 외형에 따라 창사 이래 최초로 영업손실의 매출액 대비 비율이 두 자릿수로 줄어들 것이다

투자지표

(십억 원) IFRS 연결	2021	2022	2023	2024E
매출액	6.6	13.9	25.1	67.5
영업이익	-45.7	-50.7	-42.2	-52.0
EBITDA	-43.6	-47.6	-38.4	-47.0
세전이익	-73.7	-39.1	-36.8	-22.9
순이익	-73.7	-39.1	-36.8	-23.0
지배주주지분순이익	-73.7	-39.1	-36.8	-23.0
EPS(원)	-4,621	-1,672	-1,380	-798
증감률(% YoY)	적지	적지	적지	적지
PER(배)	N/A	N/A	N/A	N/A
PBR(배)	N/A	5.46	10.00	4.81
EV/EBITDA(배)	N/A	N/A	N/A	N/A
영업이익률(%)	-692.4	-364.7	-168.1	-77.0
ROE(%)	114.6	-110.3	-24.2	-10.3
순차입금비율(%)	-480.0	-61.2	-85.0	-4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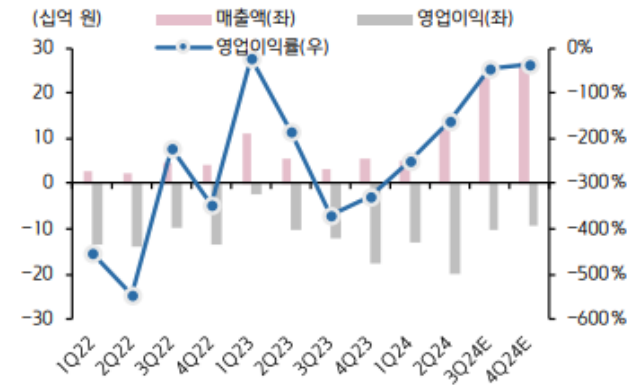
자료: 키움증권

루닛 연간 실적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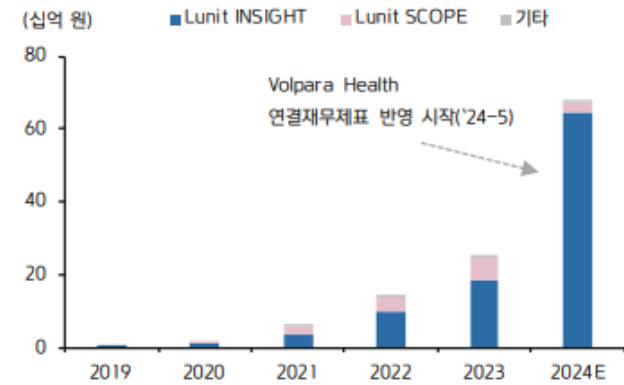
자료: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루닛 분기 실적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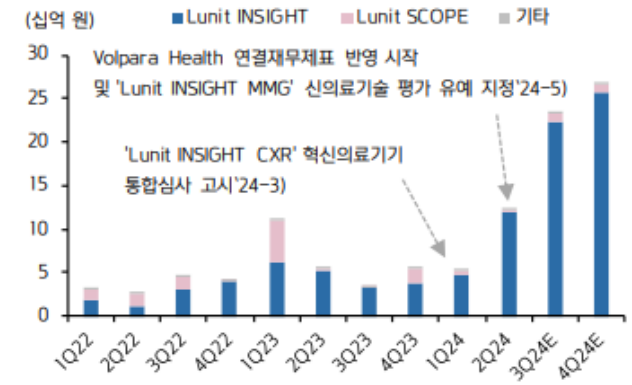
자료: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루닛 사업부별 연간 매출액 추이 및 전망



자료: 전자공시,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루닛 사업부별 분기 매출액 추이 및 전망



자료: 전자공시,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